

# 부산대학교 글로벌대학 뉴스레터

01

미래인재 교육 혁신

02

글로벌 지산학 혁신

03

AI·디지털 캠퍼스 혁신

## 80년 전통에 빛나는 최고의 거점국립대 AI 시대 교육혁신을 선도하다

인공지능이 지식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대, 부산대학교는 AI·데이터·디지털 전환을 하나로 잇는 AX 대전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교육과 연구, 캠퍼스의 모든 경험을 재설계하며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혁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산대는 특별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에게 세상의 중심이라는 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1. 미래인재 교육 혁신

- 부산대-부산교대,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동시 운영
- 부산대-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중학교 5곳 'AI·디지털 프로그램' 공동 운영
- 부산대 인문관 복합러닝커먼스 「인문마루」 개소
- 부산대-부산교대 예비교원, 미국 워싱턴 패더럴웨이서 글로벌 교육실습
- 부산대-부산교대 예비교원, 호주에서 해외교육실습

## 2. 글로벌 지산학 혁신

- 부산대-부산교대, 에듀테크 창업 공간 「EDU BIZ SPACE」 개소
- 부산대, 부산시·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2026 지산학 쇼케이스」 성료
- 부산AX협의회 출범...지역 산업 AI 전환 본격화
- 부산대 산학협력단 「PNU-BNUE 창업 챌린지 캠프」 성료

## 3. AI·디지털 캠퍼스 혁신

- AI 선도 부산대, 국내 대학 최대 규모 4배 빠른 WIFI 7 도입
- 부산대, Google과 AI 교육혁신 파트너십 공식화
- 부산대, 「AI 창작 챌린지 공모전」 성황리 개최
- 부산대, 국내 대학 첫 'Cloud-to-AI Workspace' 구축

## 부산대-부산교대,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동시 운영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는 2027년 대학 통합을 앞두고, 글로벌대학30사업을 통해 구축된 첨단 강의 시설을 활용해 양 캠퍼스를 실시간으로 잇는 첫 온·오프라인 동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대 교육특화총괄본부 종합교원양성센터는 부산교대 미래교육원과 공동으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3회에 걸쳐, 양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글로벌대학30사업으로 양교에 구축된 Hyflex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Hyflex 강의시스템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으로 결합한 최첨단 교육 환경이다. 이를 통해 부산대와 부산교대 각 강의실의 학생들은 화상 중계 및 상호작용 시스템을 활용해 교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캠퍼스 구분 없이 동일한 품질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양 대학 통합 후 캠퍼스 간 이동 없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미래형 수업 모델의 첫 적용 사례다.

교육과정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디지털 도구: AI 활용 수업 웹사이트 제작, Gemini 활용 콘텐츠 설계 △[2단계] 생성형 AI 활용: LLM 원리 이해 및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 제작 기초 △[3단계] 생성형 AI 심화: 자연어 기반 코딩을 통한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AIDT) 제작 및 배포 등 단계를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부산대 내 AI 전문 교육 인력인 AI융합교육원 교수진과 현장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AIEDAP(아이에답. AI Education Alliaance & Policy lab) 마스터 교원 등 최고 수준의 전문가 그룹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이수 학생들을 보조강사단으로 활용해 동료 학습을 지원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부산대-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중학교 5곳 'AI·디지털 프로그램' 공동 운영



부산대학교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 내 교육복지 사각지대해소와 인구감소시대의 핵심 과제인 '지역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밀착형 교육 지원에 함께 나서고 있다.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 종합교원양성센터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동래교육지우너청과 협력해, 지난 2026년 5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교인 금정·동래·연제 지역 5개 중학교의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AI·디지털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공교육 현장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부산대의 핵심 교육 정책인 'PNU-AX 마스터플랜(A.U.R.A)'을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 중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의 질적 도약을 제공하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2027년 3월 통합을 앞두고, 양 대학이 공동으로 초·중등 교차실습형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비교원들은 중학교 현장에 투입돼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멘토링을 수행함으로써, 그간의 이론 중심 실습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10명의 예비교원들은 교육청과 대학의 사전 교육을 거쳐 밀착 멘토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학생별 맞춤형 지도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예비교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여 통합 이후 더욱 안정적인 미래 교육 현장 조성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각 프로그램은 지역 중학교가 당면한 디지털 교육 환경의 제약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1> '생성형 AI로 그리는 미래설계 교실'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게 했으며, <프로그램2> 'AI 스마트 보안시스템 만들기'는 부산예술중학교를 대상으로 범용 교구(마이크로비트)와 무료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진행됐다. 이는 교육 예산 부담없이도 최신 AI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 모델'을 제시해, 학교급 간 디지털 교육 격차의 해소에 기여했다.

## 부산대 인문관 복합러닝커먼스 「인문마루」 개소



부산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5월 14일 오후 교내 인문관 1층에서 인문대학 복합러닝커먼스 「인문마루」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한 '인문마루'는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가의 부산대 인문관 초기 설계 당시부터 자리를 지켜 온 기존 1층 학생회실 공간을 리모델링해 복합러닝커먼스로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개교 80주년을 맞아 인문관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했다.

특히 '인문마루'는 글로벌대학30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Knowledge Base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단일 전공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과제 중심의 융합교육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인 '인문마루'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던 전통적인 '마루'의 의미를 바탕으로, 바로 옆 금정산 자연 계곡인 미리내골과 어우러져 학습과 토론, 휴식과 교류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열린 인문 공동체 공간을 지향한다.

또한 '마루'가 지닌 '으뜸'과 '정상'의 의미처럼, 인문학적 가치의 중심이자 부산대 지성의 전담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의미도 담았다.

이번 개소를 계기로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습환경을 마련하고, 구성원 간 소통과 교류를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 세미나와 콜로키움 등 다양한 학술·문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인문마루가 학생과 교수, 직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인문대학의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소통이 살아 숨 쉬는 열린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대-부산교대 예비교원, 미국 워싱턴 패더럴웨이서 글로벌 교육실습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는 2027년 3월 성공적인 대학 통합과 '종합교원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 패더럴웨이 부산대-부산교대 연합 글로벌 교육실습'을 진행했다. 미국 패더럴웨이 글로벌 교육실습은 2026년 7월 처음 시작돼 2026년 1월과 7월까지 세 차례 연속 진행됐으며, 이번 3회차는 2026년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패더럴웨이 일대에서 부산대-부산교대 재학생 예비교원 8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양 대학은 △예비교원 주도의 '수업시연' △초·중등 학교급이 경계를 넘는 '교차 실습' △현지 한국 언어·문화 교육 현장에 참여하는 'K-Camp' 합류를 3대 핵심 축으로 실전 중심의 글로벌 교육실습 성과를 도출했다. 예비교원들은 이번 실습에서 미국 공교육 현장의 '수업 주도자'로 참여해, 현지 멘토 교사의 지도 아래 소그룹 및 학급 전체 수업을 직접 기획·시연하며 글로벌 수업 설계와 교실 고나리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과 중등으로 엄격히 분리된 국내 교원양성 체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학교급 간 연계 실습을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구현했다.

양 대학은 1월 디케이터 고교·올림픽 뷰 K-8 학교 실습에 이어 7월 패더럴웨이 교육청 관내 초·중·고 연합 여름 정교 계절학기 수업에 참여해 입체적인 교차 실습을 완수했다. 실습단은 또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시애틀한국교육원이 주관한 'K-Camp'에 참여해 현지 학생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공예 수업을 기획·보조했다. 또한 국내 현직 전문 교원 멘토진의 피드백을 받으며 수업 구성력과 현장 적응력, 교수 전문성을 높였다. 양교는 향후 시애틀한국교육원과의 업무협약(MoU) 추진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K-교육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부산대-부산교대 예비교원, 호주에서 해외교육실습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예비교원들이 호주 뉴캐슬에서 초·중등 경계를 넘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교차교육실습에 나선다. 양 대학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9일간 호주 뉴캐슬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 및 현지 실습학교(Hunter of the Performing Arts, 이하 HSPA)에서 '2026학년도 부산대-부산교대 연합 호주 뉴캐슬대학 글로벌 교육실습'을 공동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 사범대학 재학생 6명과 부산교대 재학생 6명 등 총 12명의 예비교원이 참여하는 Edu-PBL 기반 글로벌 교차 교육 실습으로 운영된다. 예비교원들은 초·중등 교차 혼합팀을 구성해 호주의 K-12(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공교육 현장을 공동으로 관찰·분석하고, HSPA 수업 참관과 뉴캐슬 대학교 첨단 시뮬레이션 교육 시설인 Sim Lab·Sim Cave 체험 등을 바탕으로 국내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Edu-PBL 수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특히 △초·중등 연계형 브릿지(Bridge) 교육 △에듀테크 기반 학생 참여형 수업 △예술·체육 융합형 교과 활동 등을 주제로 호주 교육사례를 공동 탐구하고, 초·중등 학교급 간 연계와 실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수업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첨단 Sim Lab·Sim Cave 체험 및 공연예술 특화학교(HSPA) 참관실습 참가자들은 호주 뉴캐슬대의 최첨단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인 'Sim Lab' 및 'Sim Cave'를 체험한다. 동시에 AI 및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가상 학생들과의 모의 수업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교실관리, 질문기법,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운다. 또한, 공연예술 중심 특화 공립학교인 Hunter School of the Performing Arts(HSPA)를 방문해 무용·드라마·음악 등 예술 요소를 교과와 결합한 융합형 수업을 참관 후, 현지 교사들과의 협력 수업 및 현장 토론을 통해 예비 교원으로서의 글로벌 교직전문성과 수업 설계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 부산대-부산교대, 에듀테크 특화 창업 공간 「EDU BIZ SPACE」 개소



2027년 3월 통합을 앞둔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는 부산교대 캠퍼스 내에 에듀테크 특화 창업 공간인 「EDU BIZ SPACE」를 조성해 6월 8일 오후 개소식을 갖고, 지역 에듀테크 산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 기반 협력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혁신과 지역 산업 성장을 연계하는 에듀테크 창업 거점의 출범을 알렸다. EDU BIZ SPACE는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함께 조성한 에듀테크 특화 창업 공간으로, 지상 2층의 옛 학생군사 교육단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해당 공간은 향후 에듀테크 교육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운영되며, 지역기반 에듀테크 창업 활성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6년 연내 에듀테크 관련 창업 기업 15개사가 입주해 창업 보육과 기술 고도화, 사업화 연계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EDU BIZ SPACE 입주기업, 관내 에듀테크 기업 등 관계자들이 자리해, 1층 라운지 공간과 2층 입주 공간을 둘러보며 향후 운영 방향과 활용계획 등 지역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향후 양 대학은 EDU BIZ SPACE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기업 발굴과 육성, 교육현장 연계 실증,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남권 최초의 초·중등 에듀테크 소프트랩 및 부산 글로컬 에듀케이션 센터(BGEC)와 연계해 지역 기반 교육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부산대, 부산시·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2026 지산학 쇼케이스」 성료



동남권 대표 거점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가 유망기술의 산업화와 투자 연계를 위한 지산학 협력 플랫폼의 중심 축으로 나선다. 동남권 지역 내 핵심 거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대가 본격적인 역할에 나섰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부산대학교 기술지주는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공동 주최·주관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2026 지산학 쇼케이스」 행사를 6월 24일 부산 시그니엘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남권 대학의 우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화 촉진과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기업·투자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운영됐다.

올해 3번째를 맞은 이 행사는 'BUSAN Industry NO.1 CREW - PART3'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남권 지산학 기술사업화 성과관 △ 동남권 지역대학 Unicom IR 데모데이 △ 우수 스타트업 성과 전시관 △ 우수 연구성과 전시 및 상담존 △ 기술매칭데이 등 자체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인 '동남권 지역대학 Unicom IR 데모데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 기술창업기업들이 벤처캐피탈(VC), 엑셀러레이터(AC), 투자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기술매칭데이'에서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적 과제와 수요를 공구하고, 대학 연구진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상담이 진행돼 기술사업화 및 산학협력 기회발굴의 계기가 됐다. 이날 '우수 스타트업 성과전시관'에는 부산대를 비롯해 동의대, 국립한국해양대, 경상국립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동남권 주요 대학이 발굴·육성한 유망 참여기업들이 참가해 혁신 기술과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우수 연구성과 전시 및 상담존'에서도 대학별 우수 연구성과와 사업화 유망기술이 전시돼 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부산대를 중심으로 한 행사의 공동 주관기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된 유망기술과 스타트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연계, 기술 고도화, 사업화 지원 등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과 투자, 그리고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남권 기술창업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부산AX협의체 출범…지역 산업 AI 전환 본격화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은 6월 26일 부산 동래구 호텔 농심에서 「부산 인공지능전환(AI)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산업의 실질적인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제1회 AI 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AX협의체'는 지난 2024년 결성돼 동남권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온 '부산DX협의체'가 최근 급변하는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고도화 및 재출범한 것이다. 새로 정비된 부산AX협의체는 △부산대 창업지원단 △부산대 앵커사업단 △부산대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산울산경남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사)부산벤처기업협회 △(재)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며, 지역 내 지·산·학·연 AI 지원 인프라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 성과가 기업의 현장 혁신으로 직결되는 'AI 성과 확산형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업무협약식을 통해 7개 참여 기관은 다부처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 중심의 '기술 생태계 확장' △연구 성과와 대기업 선진 사례를 매칭하는 '현장 적용 가속화' △수요 기업 맞춤형 실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연구 성과 내재화'를 발표하고, 향후 지역 기업의 AI 역량을 전방위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후에 이어진 '제1회 AI 확산 포럼'에서는 동남권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비전공자도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 실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산업현장 AI 확산을 위한 Claude & n8n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최신 AI 기술인 Claude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활용한 파일·이미지·PDF 처리 업무 자동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n8n 기반의 RSS 뉴스 정리 및 일정 관리 AI 에이전트 제작 실습, Claude MCP와의 연결 및 생성형 AI의 한계점 공유 등 산업현장에서 즉각 응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 부산대 산학협력단 「PNU-BNUE 창업 챌린지 캠프」 성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7년 통합을 앞둔 부산대학교(PNU)와 부산교육대학교(BNUE) 재학생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소노문 해운대에서 「PNU-BNUE 창업 챌린지 캠프」를 개최했다. 글로컬 대학30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캠프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전 창업 경험을 통해 미래 에듀테크 분야의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양 대학 간 창업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2027년 통합을 앞둔 양 대학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창업 관점에서 해결해 보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캠프에서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재학생 26명이 연합팀을 구성해 교육 분야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전 과정을 수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교육 현장의 문제를 탐색한 뒤 생성형 AI와 바이트코딩을 활용해 △아이디어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설계 △창업팀 브랜딩 등 단계별 과정에 참여해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창업 아이디어로 연결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전 과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대학과 전공의 경계를 넘어 협업하며 에듀테크 창업에 대한 이해와 실전 역량을 높였다.

## AI 선도 부산대, 국내 대학 최대 규모 4배 빠른 WIFI 7 도입



부산대학교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캠퍼스 조성과 AI 교육·연구 환경 마련을 위해 기존보다 4배 빠른 혁신 Wifi를 국내 최대 규모로 구축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최신 무선랜 규격인 WiFi 7 AP(엑세스 포인트) 3,200대를 도입해 교육·연구·업무 무선인터넷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2026년 8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대는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학내(부산·양산·밀양 캠퍼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공간인 'PNU-WiFi Arise-Zone'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체 캠퍼스에 걸쳐 신규 장비 3,200대를 설치하며, 2010 ~2018년 도입된 노후 장비(WiFi 4,5,) 1,120대 철거 및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는 등 무선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할 예정이다.

강의·실습·교육 공간은 물론 교수·대학원생 연구 공간까지 무선인터넷 구축률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대학30'사업의 핵심 가치인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산대 캠퍼스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최신 WiFi 7기반의 초고능성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대학의 정보서비스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동참하고, 누구나 부산대 캠퍼스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캠퍼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산대, Google과 AI 교육혁신 파트너십 공식화



부산대학교가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 디지털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Google)의 교육 특화 솔루션 사업 부문 'Google for Education'과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공식 협력에 야심차게 나서면서 전국적인 관심과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는 구글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전반에 AI 전환이 본격화되고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수 연구역량 및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혁신과 AI(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적 기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Google for Education과 5월 13일 오전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PNU 80th] PNU X Google for Education AI Education Partnership Ceremony」([PNU 80th] 부산대학교와 Google for Education AI 교육혁신 파트너십 세레모니) 행사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공식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력에 따라 부산대는 2026년 6월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교원과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전반의 디지털 협업을 고도화하는 에듀테크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Plus'와 생성형 AI 기반의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AI 솔루션 'Google AI Pro for Education'을 전면 도입해 대학 전반에 AI 활용 생태계인 'Google AI Ecosystem'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거점 국립대인 부산대는 구글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교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대학 운영과 학습 환경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지역 청년들에게 수준 높은 AI 기반 성장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AI 실무역량과 융합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의 핵심인 파트너십 세레모니에서는 최재원 부산대 총장과 케빈 켈스 Global Managing Director가 '공동 프롬프트'를 함께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AI 시대의 협력은 올바른 질문(프롬프트)에서 시작된다는 행사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구현한 장면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레모니 이후에는 기념패 교환, 학생 대표의 꽃다발 전달, 단체 촬영이 이어졌다.

## 부산대, 「AI 창작 챌린지 공모전」 성황리 개최



부산대학교가 대학 구성원들의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확대하고 참여형 AX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AI 창작 챌린지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최종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6월 23일 교내 건설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수상자 9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AI 창작 챌린지 공모전은 부산대 AX-정보화혁신본부가 주관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대학 내 자발적·참여형 AX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대 소속 대학(원)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1일간 진행된 이번 AI 창작 챌린지 공모전에는 마감 결과 총 92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참가자들은 학내 생활, 대학 홍보, 개교 80주년 기념, AI 윤리·교육·연구 등을 주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웹툰·이미지·영상(숏폼) 콘텐츠를 각각 제작·응모했다. AX-정보화혁신본부는 특히 부산대 특화 무료 생성형 AI인 '산지니 AI'로 작품 제작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이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이 '산지니 AI' 서비스를 창작 과정에 직접 적용하면서 다형성 AI의 기능과 활용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대상작을 대학 공식 홍보 채널과 연계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고, 구성원의 AI 창작 사례를 대내외에 확산할 계획이다.

## 부산대, 국내 대학 첫 'Cloud-to-AI Workspace' 구축



부산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전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Plus와 교육용 AI 서비스인 'Google AI Pro for Education'을 함께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타 대학들이 시도하는 일회성 문답 방식의 생성형 AI 서비스나 API 연동형 챗봇 방식과 달리, 대학 구성원이 상시 사용하는 구글 지메일 (Gmail), 문서(Docs), 드라이브 등 기존 작업 환경에 AI 엔진이 직접 연결되는 'Cloud-to-AI Workspace'를 전체 교수, 학생에게 제공하는 국내 첫 사례다.

부산대는 'AI EDTECH 교육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해,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Plus 및 Google AI Pro for Education과 Google Gemini Enterprise를 함께 도입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Google AI Pro for Education은 구글의 고성능 AI 모델인 Gemini 3.1 Pro 접근 권한과 확장된 사용 한도를 제공하며, Gmail·Docs·Sheets 내 AI 작성 지원, NotebookLM 기반 연구 활동,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등을 포함한다.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Plus는 Google AI Pro와 연계·운영되는 협업 플랫폼으로, 교수·학생 웹메일 계정을 기반으로 인증·문서 편집·저장이 단일 환경에서 제공된다. 또한, Gemini 3.1 Pro 기반 개인 자료 업로드·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도입은 국내 대학생 대부분이 학습에 AI를 활용하는 현실 속에서, 개인 유료 구독으로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기반 교육·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캠퍼스를 'AI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Cloud-to-AI Workspace' 플랫폼 도입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AI 역량 향상 지원과 수업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대학이 운영 중인 API 중개형 서비스는 외부 AI 모델의 응답을 학내 포털에 연결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AI가 개인의 문서나 맥락을 기억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며, 대화창을 닫으면 모든 정보가 초기화된다. 반면, 이번 6월에 도입되는 Google AI Pro for Education은 개인 드라이브에 자료를 올려 분석하고, 업무 환경에서 개인 맥락이 연결된 AI 지원을 받아, AI를 학습과 연구 전반의 인프라로 사용 가능하다.



## 다음 호 뉴스레터 안내

다음 호 뉴스레터는 **2027년 3월 발간 예정**입니다.

소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 있는 경우 **2027년 2월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산대학교 글로벌대학  
홈페이지 바로가기](#)

뉴스레터명 : 부산대학교 글로벌대학 뉴스레터 Vol. 2

발 행 부 서 : 부산대학교 기획처 대학혁신지원과

발 행 일 : 2026년 9월

e - m a i l : pnuglocal@pusan.ac.kr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